

프로야구 전망대

가을야구 기로에 SUN '운명의 승부'

**KIA, 4강진입 중대 고비
 삼성·넥센과 홈 6연전
 선동열 감독 용병술 주목**

위기의 '호랑이 군단'이 안방에서 벼랑 끝 승부를 벌인다. KIA가 1위 삼성 그리고 3위 넥센과 주중 홈 6연전 대결에 나선다. 후반기 시작부터 2승4패에 그치며 6위로 내려앉은 KIA에게는 상위권 팀을 상대해야 하는 버거운 일정이다.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마무리 문제와 상대 전적을 생각하면 KIA의 가을 성적표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올 시즌 최대의 승부처다. 삼성전은 자존심을 놓고 벌이는 필사적인 승부다. 올 시즌 KIA는 삼성과의 9차례 대결에서 단 1승을 챙기는데 그쳤다. 6번의 원정길에서 모두 싹쓸이 패를 당하는 등 1승8패의 전적으로 삼성 선두 집주의 숨은 주역이 됐다. 하지만 만나면 풀이 죽는 타자들과 제 힘을 쓰지 못하는 투수들로 이중고다. 올 시즌 0.271의 타율만을 보이고 있는 KIA지만 삼성전 타율은 0.230으로 딱 떨어진다. 9경기에서 기록한 타점도 20점에 불과하다. 반대로 삼성전 평균자책점은 5.59까지 뛰어들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 넥센에는 5승3패로 앞서 있지만 새 얼굴로 무장한 영웅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넥센전 평균자책점은 5.66까지 올라가지만 타율은 0.300을 기록하면서 타력 싸움 양상이었다. 주말 화끈한 홈대결이 예고된다. KIA는 지난 28일 경기에서 455일 만에 터진 안치홍의 세기 3점포와 노련함으로 NC 타선을 봉쇄하며 승리투수가 된 최고령 최항남을



삼성전 선발 김진우

■ 프로야구 중간순위 (7월 29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79	48	29	2	0.623	0.0
2 LG	82	48	34	0	0.585	2.5
3 넥센	80	44	35	1	0.557	5.0
4 두산	81	43	36	2	0.544	6.0
5 롯데	80	41	37	2	0.526	7.5
6 KIA	76	38	36	2	0.514	8.5
7 SK	77	36	40	1	0.474	11.5
8 NC	82	30	49	3	0.380	19.0
9 한화	77	22	54	1	0.289	25.5

투까지 채워가며 어렵게 아웃카운트 세 개를 잡으며 덕아웃을 숨죽이게 했다. 쫓기는 마운드를 위해 타자들의 초반 공략이 중요하다. 특히 삼성 장원삼과의 대결이 중요하다. 30일 김진우와 맞대결에 나서는 장원삼은 KIA전에서 0.79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을 가져갔다. 이날이 거듭 될수록 강해지는 장원삼의 초반 공략에 실패하면서 제물이 됐다. 여기에 선취득점시 KIA의 승률이 0.718(28승1무11패)에 이르고 있는 만큼 초반 타선의 집중력이 중요하다. 중대한 6연전을 앞두고 초강력 엔트리 교체 카드가 사용됐다. KIA는 힘이 떨어진 최희섭·유동훈·차일목 등 고참 선수들을 2군으로 내려보내는 강수를 뒀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이자 새 얼굴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이들을 대신해 황정립·심동섭·이흥구 등 젊은 선수들을 1군으로 불러올려 새 바람을 넣을 계획이다. KIA가 훈련량을 놓고 불꽃 대결을 벌이고 있는 삼성 최형우와 넥센 박병호가 버티는 상대의 강타선을 막으며 순위 싸움에 새 판도를 열지 주목 된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동열 KIA 감독
 2013 시즌 출사표

쉬어갈 곳 없는 타선
 탄탄한 수비 구축
 전력 좋아 우승이 목표
 올해 일 한번 내겠다



그래도, 항상 유쾌했던 외국인 친구... "굿바이 앤서니"

특 & Talk

지난해 여름에도 KIA 선수들은 단체 사발에 있었다. 삼성과의 6월 원정에서 워닝시리즈를 내주고 돌아오던 날, 김상훈을 중심으로 고참 선수들이 버스 안에서 사발 결의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선수들이 까까머리가 돼 덕아웃을 활보했다. 이날 유일하게 머리가 길었던 선수가 있었다. 휘둥그레진 눈으로 낯선 동료들을 보던 앤서니. 난감한 표정으로 "아무도 내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나도 저녁에 머리를 밀겠다"고 말한 앤서니는 다음날 정말 시원하게 머리를 밀고 등장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기대한 일도 아니었지만 외국인 선수까지 '팀워크'를 외치며 사발 행렬에 동참한 것이다. 올 시즌 단체 사발에도 앤서니는 가까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내어놓았다. 원래 있던 선수처럼 금세 KIA에 동화됐던 앤서니는 한국 문화 알기에도 스타덤이었다. 근사한 발음으로 '안녕하십니까'를 말하더니 유행어를 따라 '안녕하십니까'를 외치며 덕아웃을 웃음 바다로 만들던 선수다. 소주와 사이다를 섞어 '소사'라고 외치며 소사에게 술잔을 건넨 일도 유명하다. 한국 음식도 곧잘 먹었다. 한번은 홍어를 먹고 왔노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앤서니는 코를 잡으며 "트립을 할 때마다 그 맛이 올라온다"고 덕아웃이 떠나가라고 웃었다. 유쾌했던 앤서니는 소사에게도 든든한 울타리였다. 외국인 선수 사이에는 묘한 갈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국적과



메이저 경험에 따라서 서열 아닌 서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선수에 대한 질투로 프런트 속을 썩이기도 하는 등 외국인 선수의 궁합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다른 국적의 앤서니와 소사는 '앤서니'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마음 맞는 친구였다. 올 시즌 마무리 투수로 첫 발을 내디뎠던 앤서니는 중요한 고비마다 흔들리며 애증의 이름이 되어버렸다. 더딘 회복세와 같 같이 먼 팀 상황과 맞물려 결국 두 번째 시즌을 넘기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게 됐다. 출국을 앞두고 있는 앤서니의 마음에는 미안한 한곳에 섭섭함도 있을 것이다. 스프링 캠프에서 마무리로 보직이 이동되면서 더 혹독하게 시즌을 준비해야 했고, 초반 마무리였지만 볼펜 사정 상 8회부터 무거운 책임을 지곤 했다. 마무리에 집중해 시즌을 준비한 만큼 시즌 다시 선발로 전환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쉽지만 프로의 세계는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서 앤서니도 팀에게도 씁쓸한 여름이 되고 말았다. 서운한 작별이 되고 말았지만 가장 따뜻하고 유쾌했던 외국인 선수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덕아웃을 시끌시끌하게 했던 그의 목소리가 가끔은 그리울 지도 모르겠다. 굿바이 앤서니.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홍명보 축구는 '미완성'

동아시아컵 2무1패
 수비는 합격·공격력 과제

2013 동아시아컵(EAFF) 축구선수권 대회(이하 동아시아컵)를 통해 처음 출전한 홍명보호(號)에서 3경기(2무1패)에서 단 1득점에 그치는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결정력 끌어올리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공격-미드필더-수비 라인을 총출동해 운영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패스를 앞세워 이전 대표팀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결정력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다만 짧은 준비 기간 속에 3경기를 치르며 2실점에 그친 수비는 성과로 꼽힌다. <스트라이커 '0골' 유럽과 공격수가 대안 =4-2-3-1 전술을 기본으로 이번 대회에 나

선 홍 감독은 원톱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김동섭(성남), 김신욱(울산), 서동현(제주) 등 3명을 발탁했다. 호주와 치른 1차전에는 김동섭이, 중국과의 2차전에는 서동현이 선발로 출전했다. 김신욱은 1, 2차전에 모두 조커로 투입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 3명은 자신의 역할인 골 사냥에 모두 실패했다. 김동섭은 많은 움직임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선보이며 활약했지만 골을 넣지 못해 아쉬움만 남겼다. <한국형 축구'는 이제 시작=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비록 대표팀이 승리를 따내지 못했지만 홍명보 감독이 구상한 '한국형 축구'의 밑그림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90분 내내 상대를 압박하면서 빠른 좌우 측면 돌파와

간결한 패스워크를 통해 골 기회를 만들어냈다. 스트라이커들의 결정력 부재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경기 내용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하대성·윤일록'의 재발견=이번 동아시아컵에 나선 대표팀의 주장을 맡은 중앙 미드필더 하대성(서울)과 왼쪽 날개와 새드 스트라이커를 번갈아 맡은 윤일록(서울)은 이번 대회를 통해 유럽파들의 특세 속에 자신의 입지를 굳힌 K리그로 눈길을 끌었다. 하대성은 이명주(포항)와 함께 더블 볼란테를 맡아 중원에서 공격을 조율하는 한편 강한 몸싸움으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입구에 총살했다. 윤일록 역시 지난해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하며 마음고생을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홍명보호의 마수잡이 골을 터트리며 홍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았다. /연협뉴스

박지성 친정팀 PSV로

옛 동료 필립 코쿠가 감독
 메디컬 테스트 받고 막판 조율

박지성(32·퀸스파크 레인저스·이하 QPR)이 '친정팀'인 네덜란드 프로축구 명문 PSV 에인트호번과 2년 계약을 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네덜란드 언론이 보도했다. 네덜란드 일간지 에인트호번 다흐블라트는 29일 "에인트호번이 박지성의 계약을 마무리짓고 싶어한다"며 "구단은 박지성과 2년 계약을 하고 싶어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양쪽 모두 기본적으로 2년 계약 조건에는 합의한 상태"라며 "1년만 계약한 뒤 1년을 추가로 계약할 수 있는 옵션을

넣는 방법과 2년을 계약한 뒤 두 번째 시즌에 구단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조건을 포함한 옵션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에인트호번에서 신 체 검사를 마친 박지성은 29일 최종 협상을 벌인 뒤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특히 박지성이 2013-2014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려면 현지시간으로 29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조만간 협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에인트호번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오후 8시30분 에인트호번의 PSV 스타디움에서 윌테 바레헨(벨기에)과 UEFA 챔피언스리그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박지성

한편 에인트호번의 현재 감독은 박지성의 옛 클럽 동료인 필립 코쿠(43)다. 코쿠 감독은 선수 시절이던 2004-2005시즌부터 2006-2007시즌까지 에인트호번에서 미드필더로 뛰었다. 박지성과는 2004-2005시즌에 한술밥을 먹으며 중원에서 호흡을 맞췄다. /연협뉴스

